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

김 경 아*

I

1.1. 15세기에는 종성의 표기로써 ‘ㅅ’과 ‘ㄷ’이 엄격히 구별되고 있었다. 즉 八終聲法이 지켜져 어간말음의 형태음운표시¹⁾가 //ㄷ//인 경우는 물론 //ㅌ//과 //ㅎ//인 경우에도 자음어미 앞에서는 ‘ㄷ’의 표기를 잘 지켜주고 있다. 반면 어간말음의 형태음운표시가 //ㅈ//과 //ㅊ//인 경우에는 자음어미 앞에서 ‘ㅅ’의 표기를 역시 잘 지켜 주고 있다. //ㄷ//인 경우는 수의적으로 ‘ㅌ’과 ‘ㅅ’을 실현하고 있으나 어쨌거나 ‘ㄷ’의 표기를 보였던 적은 없다. 단 음절말 위치의 형태음운 //ㅈ, ㅊ//이 八終聲法의 표기 원칙에서 예외를 보인 경우는 겸양법 선어말어미와의 결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다음의 예들을 보자.

믿조오리(←‘밧-’, 금강 8)

부터를 졸조바(←‘쫏-’, 석 13:45)

* 서울대 강사

- 1) 본고에서는 세개의 표시층위를 설정하고 있다. 형태음운표시, 음운표시, 음성표시를 음운현상의 기술을 위한 표시 층위로 설정하고 있는 것이다. 형태음운표시는 형태음운적 분석에 근거한 표시로 음운표시와는 달리 발음가능 단위가 아니다. 형태음운표시는 // //, 음운표시는 / /, 음성표시는 []로 나타내 준다. 본 논의의 주13)을 참조

조짚바 오니(←'쫘-', 월석 7:6)

부터를 맛즈바(←'맛-', 월석 1:13)

부터를 마줍더니(←'맛-', 월석 21:203)

위의 용언어간들의 말음은 음절말 미과화를 겪어 음운/ㅅ/으로 합류된 경우이다. 그러나 '밧즈오리, 존즈바'와 같은 활용형의 표기는 이들 용언어간의 말음이 /ㅅ/이 아닌 /ㄷ/으로 합류하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맛즈바'와 같은 경우는 종성 표기로 'ㅅ'을 쓰고 있기는 하나 겸양법 선어말어미의 통합방향이 '-줍-'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허용(1985:421)과 김주필(1988:210-11)에서는 ㅈ, ㅊ으로 끝나는 이들 용언어간이 겸양법 선어말어미 '-줍-'을 선택한다는 이상의 사실을 토대로, ㅈ, ㅊ이 이미 이 위치에서는 [t]로 미과화된 후 '-줍-'을 통합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이 환경에서는 형태음운//ㅈ, ㅊ//이 /ㅅ/이 아닌 /ㄷ/으로 합류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머리롤 쫘스뵤니(용95), 머리 조쫘바(월석 21:20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형태음운이 //ㅅ//인 경우에는 '-습-'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16세기에 접어들면 전반적으로 종성표기 'ㅅ'과 'ㄷ'이 혼기되기 시작한다. 小學諺解(1587)에서부터는 'ㅅ'을 'ㄷ'으로 바꾸어 표기한 예가 많이 나타나고 반대로 'ㄷ'을 'ㅅ'으로 표기한 예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러한 종성표기로서의 'ㄷ'의 우세는 17세기초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家禮諺解(1632)부터는 오히려 'ㅅ'의 우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즉 원래 'ㄷ'으로 표기되던 것들까지 'ㅅ'으로 바꾸어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리하여 'ㄱ, ㄴ, ㄹ, ㅁ, ㅂ, ㅅ, ㅇ'의 七終聲法은 朴通事諺解(1677)에 이르면 거의 완성된 표기법의 원리로 나타나게 된다.²⁾

1.2. 이상에서 살펴본 종성표기법의 변천은 표기가 언어현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즉 음절말 위치에서 /s/가 [t]로 미과화하여 음운론적으로는 /t/에 합류했음에도 불구하고 표기의 방향은 오히려 근대국어 시기에 이르러 'ㅅ'으로 고정되는 아이러니

2) 이익섭(1993:13-5) 참조

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우리의 관심은 음운변화와 표기의 방향이 서로 정반대로 나타나게 된 이와 같은 사실을 어떻게 해석해 줄 것이냐에 있는 것이다.

김완진(1976: 114-22)에서는 이와 같이 음운변화의 방향에 역행하는 표기법을 보여주는 'ㅅ'에 圖號素라는 독특한 명칭을 부여하고 있다. 그는 老乞大諺解의 표기를 검토하여, 음운/ㄷ/을 반영하는 종성표기로써 'ㅅ'이 선택된 때문에, 원래 어간말음의 형태음운이 //ㅅ//인 체언어간들의 표기가 老乞大諺解 전반의 표기 원칙에서 오히려 예외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보고 있다.³⁾ 이와 같은 사실을 근거로 老乞大諺解가 간행되던 시기는 아직 '기저 즉 형태음소 차원에서 ㅅ과 ㄷ이 중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II

2.1. 이제 근대국어 시기의 七終聲法 정착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종성표기 'ㅅ'의 문제와 관련하여, 논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소위 '마찰음화'의 경우를 검토해 보도록 하자. 즉 체언어간말음의 형태음운표시가 //ㄷ, ㅅ, ㅆ, ㅌ//이었던 예들이 어떠한 표기의 변천을 보여 주는가를 살펴, '체언'이라는 특정한 문법범주의 어간말음이 어떻게 'ㅅ'의 표기를 갖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되었고 또 이러한 예들이 어떻게 재구조화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아야 할 차례인 것이다. 먼저 이 변화에 대한 기존의 입장들을 간략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최태영(1977)과 곽충구(1984)에서는 음운론적 해석의 태도에 입각하여 '마찰음화'라는 이름으로 체언어간말의 자음들에서 나타나는 이 변화

3) 김완진(1976:119)에 의하면 老乞大諺解에서는 체언어간들의 말음이 ㄱ, ㅂ, ㅇ, ㄴ, ㅁ, ㄹ일 경우에는 연철을 시키지 않고 어간의 말음으로 고정시켜 표기하는 원칙을 지키고 있으나 음운/ㄷ/을 표기해 주기 위해 'ㅅ'이라는 圖號素가 사용되고 있는 까닭에 眞字 'ㅅ'(본고의 표현에 의한다면 형태음운이 //ㅅ//인 경우)의 표기는 老乞大諺解의 표기 원칙에서 오히려 예외가 되었다고 한다. 즉 //ㅅ//을 어간말음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종래대로 받침을 후행음절로 연철하는 표기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

를 설명하고 있다. 먼저 최태영(1977: 377)에서는 'ㄷ > ㅅ'의 변화가 모음 사이에서 'ㄷ'이 간극동화를 입은 것이라고 보고 그 중간 과정으로 미파화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ㄷ, ㅌ, ㅈ, ㅊ, ㅅ'이 음절말에서 [t]로 실현되고 거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연결될 때 'ㄷ > ㅅ'의 과정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태영(1977)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이 결코 미파화의 환경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곽충구(1984: 20)에서는 간극동화의 개념을 일단 받아들이고 있지만 구개음화와의 역동적 상관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ㄷ > ㅅ'의 변화보다 'ㅈ > 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설명하게 된다. 구개음화에 의해 치조음이었던 'ㅈ'이 구개음으로 변화하고 'ㄷ'은 'ㅈ'으로 변하여 마찰성을 얻게 되고 이어서 'ㅈ'은 이 위치에서의 간극동화에 의해 'ㅅ'으로 마찰음화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ㄷ/과 /ㅈ/, /ㅈ/이 대립적 균형을 잃고 /ㅈ/이 경구개음화 하면서 /ㄷ/은 /ㅈ/과 폐쇄와 마찰이라는 대립작을 형성하게 되어, 'ㄷ'이 간극도가 큰 모음을 만나게 되면 마찰음화가 실현되어 'ㅅ'으로 나타나서 체언어간말음 //ㄷ//은 //ㅅ//으로 재구조화된다고 보고 있다.⁴⁾ 이러한 곽충구(1984)의 논의는 무엇보다 구개음화라고 하는 또 다른 음운변화가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에 과연 직접적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내적 증거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즉 음성변화에 불과한 'ㅈ'의 구개음으로의 변화가 체계적인 음운변화를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으로 남게 될 뿐 아니라, 하나의 서열(ordre)을 이룬다고도 할 수 없는 세 음운 'ㄷ, ㅈ, ㅅ'의 대립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의심스러운 것이다. 미파화의 방향과 관련하여 'ㅈ, ㅊ, ㅉ'이 [t]으로 바뀌는 것만 보아도 치조와 구개라고 하는 조음위치의 변화는 국어에 있어서 그다지 시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최전승(1986:263-284)의 논의도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ㄷ > ㅅ'의 변화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은 곽충구(1984)와 동일하다. 그러나 'ㄷ > ㅅ'으로의 변

4) 형태음운표시 '// //'를 사용한 까닭은 '재구조화(restructuring)'가 형태음운표시의 층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이다.

화가 직접적인 음운대응⁵⁾을 보여주는 변화가 아니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이 본고의 주의를 끈다. 즉 주격조사가 결합되었을 때의 구개음화형에 의한 계열적 평준화(paradigmatic leveling)의 작용이 이 변화에 개입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음운론적 해석을 시도하고 있는 위의 두 논의를 지지하는 것이지만 형태론적인 정보의 개입을 어느 정도 시사하고 있다는 점이 위의 두 사람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백두현(1992: 362-3)에서는 박충구(1984)의 해석을 받아들이면서 구개음화에 이은 유추적 평준화에 의해 'ㄷ>ㅅ'으로의 변화가 가능하였다고 보고 있어 최전승(1986)과 비슷한 관점을 보이고 있다. 특히 'ㄷ>ㅅ'과 'ㅈ>ㅅ'의 체계적 연관성을 강조하고 또 'ㅈ>ㅅ'의 변화가 체언이 아닌 용언에서 실현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어 흥미롭다. 즉 '꾸짖-, 짓-'등이 '꾸지슬, 지서라' 등으로 출현하는 예들이 문헌상에 나타나고 있어 영남방언에서는 용언어간의 경우에도 'ㅈ>ㅅ'의 영향을 어느 정도는 받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현대국어의 중부 방언에서도 '짓-'은 '짓'으로도 수의적으로 실현되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이상의 논의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ㄷ>ㅅ'의 변화에 대한 음운론적인 해석으로서의 '마찰음화'의 관점이 아닌 다소 다른 관점에서의 논의가 이현규(1985)에서 보이고 있다. 그는 'ㄷ>ㅅ'의 변화를 음운변화로 보지 않고 표기법의 영향으로 인해 형태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분명 이상의 논의들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일찌기 김완진(1976:114)에서도 'ㄷ>ㅅ'으로의 변화를 표기법의 측면에서 고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김완진(1976)에서는 자형과 관련하여 'ㄴ,

5) Jeffers & Lehiste(1979:1-2)에 의하면 음이나 음연체의 교체를 일으키는 음성적 과정(phonetic processes)을 언급하는 음변화 개념과 언어의 역사의 어느 시점과 다른 시점 사이의 한 음의 변화를 다루는 음성적 대응(phonetic correspondences)의 경우는 반드시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결국 음성적 대응은 하나의 음에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여러 음성적 과정의 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 음성적 과정은 공식적 현상이지만 통시적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따라서 구개음화와 관련하여 'ㄷ>ㅅ'의 변화를 설명하는 것은, 음운/ㄷ/이 /ㅅ/에 이르기까지 겪는 '음성적 과정'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ㄷ>ㅅ'은 음운대응일 뿐이고 그 대응에 이르는 사이에는 변이의 단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는 입장이라고 생각된다.

리'과 혼동될 염려가 없는 'ㅅ'을 선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다. 물론 이현규(1985:46-8)에서는 자형과 관련한 논의를 전개한 것은 아니다. 그는 표기법상 어째서 'ㅅ'을 선택하게 되었는가의 문제는 논의로 하고 근대국어의 'ㄷ>ㅅ'이라는 표기법상의 변화가 궁극적으로는 자소 'ㅅ'이 음절초와 음절말에서 두개의 음운으로 분석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사실이 이 변화의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이러한 혼란을 극복하려는 언중들이 결국은 'ㅅ'으로 표기된 것은 모두 동일한 음운 /s/에 대응시키려 했기 때문에 체언어간의 형태음운표시의 말음에서 원래 //ㄷ//을 가지고 있던 경우까지 'ㄷ>ㅅ'이라는 변화의 영향을 입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이 변화는 음운변화가 아니라 형태적인 변화일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고광모(1989: 12-4)에서는 설단자음의 변화가 체언어간이라는 형태론적인 범주 제약과 음절말이라고 하는 분포상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이 변화가 음운변화가 아닌 유추적 변화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마찰음화'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ㅅ'음화라는 용어를 대신 사용하면서 이 변화의 발단은 'ㅅ ~ ㄷ'의 교체에 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통시적으로 /ㅅ/이 음절말 위치에서 /ㄷ/으로 합류할 한 것이지만 언중들은 이 변화의 방향과는 반대로 체언말음 /ㄷ/이 모음조사 앞에서는 /ㅅ/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재해석하여 결국은 원래 형태음운으로서 //ㄷ//을 가지고 있던 경우까지 'ㅅ ~ ㄷ'의 교체를 가지는 방향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말하자면 'ㅅ'음화는 유추적 확대의 경우라는 것이 그의 주된 논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은 논의를 생성음운론적 입장에서 해석하여 규칙의 전도(rule inversion)로서 설명하고 있다. 'ㅅ → ㄷ / _ (C, #)'를 재해석하여 'ㄷ → ㅅ / _' 체언조사[V]와 같은 규칙을 국어의 문법체계 안에 설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의 설명에 의하면 전자의 규칙은 음성규칙이고 후자는 형태음소규칙이라고 한다.

2.2. 본고의 논의는 'ㄷ>ㅅ'의 변화를 음운변화가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는 이현규(1985)나 고광모(1989)의 논의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논의는 유추적 평준화로 해석하는 입장과는 다소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현대국어에서 체언어간말에 ‘ㄷ’을 받침으로 쓰고 있는 경우는 ‘낱, 곧, 말, 디글’ 정도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낱’은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말’은 구개음화를 겪은 ‘말-이’와 ‘말아들’과 같은 복합어에서 나타나는 정도이다. 부사 ‘곧’은 ‘곧 온다’에서와 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용언이 올 경우 역시 말음이 실현되고 있다. ‘디글’은 표기일 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 ‘디긋’으로 나타나는 것이 더 일반적인 것 같다. 어쨌거나 이들 극소수 예들을 제외하면 현대국어에서는 표기 뿐만 아니라 체언어간의 형태음운표시의 말음으로 //ㄷ//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것은 현대국어에서 나타나는 형태소 내부에서의 형태소구조제약인 것이다.

다음의 ①~④의 예들은 현대국어에 와서 이러한 형태소구조제약을 갖게 되는 체언어간들의 통시적 변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① ‘ㄷ>ㅅ’의 경우

- 나들 횃두무며(속삼강효5) > 낫스로 풀치다(한청296)
- 현 고돌 울마시노(용110) > 콩딛 귀한 곳은(노걸상:11)
- 刹那는 아니한더디라(능엄 2:7) > 잠싼덜이나(노걸상:56)
- 네의 本來 덜터든 거슬(능엄 1:85) > 덜덜흔 일이니(오륜3:30)
- 간爲筮(훈언) > 갓 선느니(소연2:22)
- 하늘 프디시니(용4) > 큰 형이 곳 이런 등흔 뜻으로(노걸상:37)
- 두 버디 빅 배안마론(용90) > 내 흔 벗이 이서 떠더오매(노걸상1)
- 긴 모드로 모매 박고(월석23:87) > 뭇으로 세네곳을 박고(박통중:36)
- 주신 부들 눈호미 맛당커늘(두초3:55) > 너를 붓을 주니(박통하:12)
- 무슨 비디(능엄7:60) > 빛이 사름을 죽게 아니하느나(박통상:32)

② ‘ㅈ>ㅅ’의 경우

- 날오지(번소9:79) > 날웃염(유합상:21)

웃기시오(법화1:31) > 웃깃(두초8:20)
 오야지(두초10:23) > 외얏이오(박통상:4), 오얏닙(구간6:29)
 이우지(능엄3:37) > 이웃하야(두초20:29), 이우슬(두중16:22)
 입거우지니(월석18:73) > 입거웃슈(자회상:28)
 저즈로(월석10:14) > 젓 머굽제(월석21:162), 젓이로다(박통상37)
 나지(용가101) > 밤낮으로(오륜1:11)

③ 'ㅈ>ㅅ'의 경우

고지라(석13:12) > 고출(두중15:33), 궂출(박통상5) > 궂을 보소(시조전서47:海一284), 궂이라도(시조전서499:樂高892)
 漆은 오시라(법화1:219) > 웃칠(유합상:26), 오출(태요53)
 지츠로(석23:49) > 짓과(두초7:15), 짓웃(두초22:46)
 돛ᄃ로(남명상23) > 돛쌀(시조전서1130:南太96), 돛출(시조전서1206:윤선도瓶歌830) > 돛을(시조전서1467:樂高891)
 솟爲炭(훈언), 솟기라(월석23:92) > 솟치(계축일기192)
 닷출(시조전서1206:윤선도瓶歌830) > 닷도 일코(청구120)
 ㄸ치(용40) > ㄸ치(오륜2:23) > ㄸ술(여사서4:21)

④ 'ㅌ>ㅅ'의 경우

바터서(석6:19), 받도(월석1:45) > 바트르(시조전서2660:海一 317) > 바츄(시조전서2580:海一328) > 바시(시조전서1539:三足堂歌帖)
 그테(석11, 29), 글(몽산12) > 궂티라(경민46) > 궂출(계축일기63), 궂치(한중366) > 궂이(시조전서827:源朴711)
 소톨(두초21:1), 솔 덩(자회중:10) > 솟출(오륜1:4) > 솟(동문하:14)
 미트로(월곡2:19), 민(석13:41) > 밋출(박통신석3:50)
 도톨(용65), 툐(능엄8:122) > 툐출(여사서1:27), 툐치(한청4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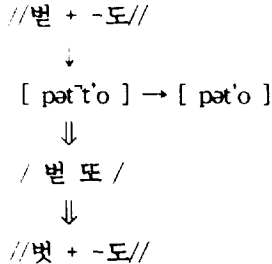
2.3. 먼저 ①의 예들에서 볼 수 있는 'ㄸ>ㅅ'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자. 이들은 15세기에 어간말음의 형태음운표시로서 //ㄸ//을 가지고 있었던 어

휘들임에도 불구하고 근대국어 시기 이후 현대국어에 이르러 모두 형태음운표시에서 //s//으로 재구조화를 일으킨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논의들에서는 'ㄷ>ㅅ'이라는 변화의 진행과정의 양상이 음운변화인가 아니면 형태변화인가에 관심을 가졌다면, 본고가 관심을 갖는 것은 'ㄷ>ㅅ'이라는 변화를 통해 형태음운표시에서의 재구조화가 일어나게 된 동기가 과연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결론부터 먼저 내려보면 이 변화는 단순한 음운변화인 마찰음화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본고는 음성실현이라는 발화 산출의 과정과 그에 대한 화자나 청자의 형태음운론적 인식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비롯된 변화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 음운변화로 이해하고 있는 최태영(1977)과 곽충구(1984)의 논의는 근대국어 이후에 나타나는 체언어간말음에서의 'ㄷ>ㅅ'의 변화 과정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 뿐 그 변화의 단초를 밝혀 보려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다. 곽광모(1989)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추적 변화에 의한 기술은 상당히 타당성 있는 논의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음절말 위치에서 음운론적인 변화의 역방향으로의 유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체언의 자립성에서만 찾고 있어 역시 설득력을 잃고 있다. 이현규(1985:46-8)는 문자로서의 'ㅅ'이 두개의 음운을 나타내는 것으로 되어 표기의 일관성을 위하여 'ㅅ'문자의 원래 값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본 것인데, 이와 같은 관점은 문제의 핵심을 음운/ㄷ/이 아니라 표기'ㅅ'에 두었다는 점에서 새로운 해석의 가능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미파음[ʈ]을 문자 'ㅅ'에 대응시킨 까닭에 대한 언급이나 접근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본고의 짧은 생각에 의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미파음[ʈ]에 대하여 왜 'ㅅ'표기를 선택하게 되었는가 하는 근본적인 물음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17세기 중엽 이후 어째서 음운변화와는 반대 방향으로 표기하는 방식이 정착을 하게 된 것일까? 바로 이 문제에 대해 김완진(1976:114)은 자형과 관련한 해석을 하였던 것이다. 이제 본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 문제를 전혀 다른 측면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즉 음절말의 미파음 [ʈ]를 'ㅅ'으로 표기하게 된 것은, 결국 화자나 청자가 미파음 [ʈ]을 형태음운론적으로는 //s//으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발화를 실현하는 음성산출

의 측면과 이 발화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인식 내지는 분석의 측면이 일치하지 않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좀더 쉽게 이야기 한다면 화자는 미파음[t̃]를 음성형으로 실현하지만 화자 자신⁶⁾이나 또 듣는 청자가 이를 미파음으로 인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미파폐쇄음 [t̃]에 대한 화자나 청자의 음운론적 분석이 /t/이었더라도 형태음운론적 분석은 //s//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의 도식을 참고해 보도록 하자.



위의 그림에서 ↓은 발화산출에 의해 미파음과 후행 자음의 경음화가 실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은 음운론적 분석과 형태음운론적 분석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는 수의적인 과정의 적용을 나타내므로 ~로 대신하여 변이형을 실현시키는 경우를 표시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⁷⁾

- 6) 화자는 자신의 발화에 대한 청자이기도 하다. 사실 화자나 청자는 실제로 발화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발화할 것이라고 믿는 실현형을 듣고 인식하는 것이다. 즉 대화의 맥락에서 화자는 무수한 변이형들을 실현시키겠지만 청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체적 언어 지식에 근거하여 인식 가능한 음운표시를 분석해 내는 것이다.
- 7) 위의 그림은 수직적인 일방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공시적인 음운현상들이 어떠한 양상을 보인다 하더라도 통시적인 맥락에서 보면 하나의 방향성을 가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일방향의 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만일 체언어 간말 설단자음이 형태음운표시에서 재구조화를 겪지 않은 단계에서 공시적인 그림을 그려본다면 다음과 같을 것이다. ↓은 음성표시를 산출하는 '음운과정'이고 ↗, ⇒는 그 반대로 적용되었던 음운현상들을 하나씩 복원하여 형태음운표시에 이르는 분석적인 '형태음운과정'이다. 즉 두 과정은 발화실현의 환부호와 발화인식의 해부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미파음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인식이 //s//으로 변화하게 되었을 때, 형태소의 재구조화가 가장 잘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은 용언어간보다는 자립성을 가진 체언어간의 경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우리는 이 변화가 가진 형태론적 범주 제약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재구조화가 진행되는 단계에 이르러 화자나 청자는 원래의 's'과 미파음[t]을 나타낸 's'을 구별할 수 없게 되었고 이 단계에서 원래의 's'에까지 's ~ ㅅ'의 교체를 실현하게 하는 유추적 확대가 적용되어 체언어간말음에서의 'ㅅ > s'으로의 재구조화가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

2.4. 이러한 재구조화는 어느 정도 표기의 전통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중세국어의 八終聲法 시기에 이미 존재했던 's > s', 'ㅅ > s'의 표기와의 관련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이다. 위에서 제시한 ②의 's > s'의 예들은 중세국어의 표기법과는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진 표기 돌인데 八終聲法이 아닌 七終聲法에 의하여 's'표기가 이루어진 뒤, 어간 재구조화에 의해 모음어미 앞에서도 음운/s/으로 실현되게 된 경우들이다. ③의 예들 중 원래 형태음운표시에 //ㅅ//을 가지고 있었던 '짓, 낮, 빛'과 같은 경우는 's > s'과 마찬가지로 중세국어 시기에 八終聲法에 의한 's'표기가 있었던 경우이다. 나머지 예들은 중세국어 이후 시기에 'ㅅ'말음을 형태음운으로 갖게 되어 중철표기와 함께 등장하는 七終聲法에 의해 's'의 표기를 보이게 된 예들이다. ④의 경우는 중세국어 시기에는 형태음운//t//이 미파화에 의해 /ㅅ/으로 음운분석되어 'ㅅ'표기로의 교체를 실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던 것이 중철표기와 함께 음절말에 's'을 표기하고 있다.

표기법과 관련하여 중세국어 시기에 이미 八終聲法에 의하여 's, ㅅ'이 's'으로 표기되었다는 사실과 근대국어 이후 중철표기의 등장에 의해 음

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좀더 상세한 논의는 김경아(1996)을 참조.

//ㅅ + -도//	
↓ ↑	
[pətʰo] ⇒ /ㅅ도/	
↓ ↑	
[pət'o] ⇒ /ㅅ도/	

절말 위치에서 'ㅅ'을 표기하였다는 사실도 설단자음을 가졌던 체언어간말의 재구조화에 부분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전부는 아니더라도 'ㅅ, ㅈ'에 대한 'ㅅ' 표기라는 원래의 표기 전통이, 종성 표기로서의 'ㅅ'에 대한 선호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으라는 추측을 해보는 것이다.⁸⁾ 즉 八終聲法에 의해 형태음운 //ㅅ//과 //ㅈ//을 'ㅅ'으로 표기하는 것은 분명 //ㅅ//과 //ㅈ//이 음절말 위치에서 음성적으로는 미파음인지 외파음인지 확실할 수 없더라도 음운/ㅅ/으로 분석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5, 6세기의 교체기에 이미 음절말 위치에서 /ㅅ/과 /ㄷ/의 음운론적 대립은 흔들리게 되므로,⁹⁾ //ㅅ//, //ㅈ//에서 교체된 음운을 반영하는 'ㅅ'의 표기는 이번에는 미파음 [t]를 반영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음절말미파화에 의해 /ㅅ/이 이 환경에서 /ㄷ/으로 부분합류함에 따라, 16세기 후반부터 나타나는 종성 위치에서의 'ㅅ-ㄷ'의 혼기는 화자나 청자로 하여금 종성표기만으로는 형태음운표시를 분석해 내기 어렵게 했을 것이고 이러한 문제는 15세기에 'ㅅ>ㅅ, ㅈ>ㅅ'의 변화를 겪어야 했던 어휘들의 경우에는 더욱 심각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杜詩諺解의 초간(1481)과 중간(1632) 사이에는 'ㄷ'과 'ㅅ' 받침 적기에 다음과 같은 다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왼편은 초간, 오른편은 중간)

듣고:듯고, 듣노라:듯노라, 꾀다:꾀다, 꾀흔:꾀흔

- 8) 이것은 어디까지나 표기와 관련된 것이다. 사실 음운변화와는 달리 표기는 상당히 보수적이므로 八終聲法에 의한 'ㅅ, ㅈ'에 대한 'ㅅ' 표기와 七終聲法에 의한 'ㅅ, ㅈ'에 대한 'ㅅ' 표기가 음운론적으로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표기 자체는 보수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 9) 16세기 초기의 문헌인 朴通事諺解의 초간본과 訓蒙字會에서는 아직 'ㅅ'과 'ㄷ'의 표기를 구별해 주고 있다. 그러나 小學諺解(1587)에 이르면 '자받논~자받논, 흥날재~흥날재, 섯재~셋재, 다술~다숫, 일느니~잇고'와 같은 표기상의 혼란이 명백히 드러나게 되고 孟子諺解(1588)에서도 역시 '다물~다뭇, 뭇초시고~뭇고'과 혼기가 보이게 된다. 이러한 문헌상의 시기를 고려해 보면 음절말 위치에서 //ㅅ//이 미파화하여 음운론적으로는 /ㄷ/에 합류한 것은 16세기 후반 정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 시기, 즉 16세기 후반에서 17세기 초엽까지는 음절말 위치에서의 합류를 전적으로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표기로서의 종성 'ㄷ'의 전성 시대여서 'ㅅ' 표기의 모습은 상대적으로 열세를 면치 못했다.

코도다:코도다, 꼰다:코디, 코흔:코흔
 문노라:뭇노라, 받디:받디,
 엇고져:엇고져, 엇느니:엇느니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16세기에 접어들면서 종성표기 ‘ㅅ’과 ‘ㄷ’은 혼기되기 시작하고, 小學諺解(1587)에서부터는 ‘ㅅ’을 ‘ㄷ’으로 바꾸어 표기한 예가 많이 나타나 종성표기로서의 ‘ㄷ’의 우세가 17세기초까지는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7세기 중엽 家禮諺解(1632)부터는 오히려 ‘ㅅ’의 우세를 보게 된다. 즉 원래 ‘ㄷ’으로 표기되던 것들까지 ‘ㅅ’으로 바꾸어 표기하기 시작한 것이다. 위의 예들을 통해서 우리는 두시언해 중간본에서도 원래 ‘ㄷ’이었던 음절말음이 ‘ㅅ’표기를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두시언해 중간본에는 15세기에 형태음운표시에서 말음을 //ㅈ//, //ㅊ//으로 가지고 있던 경우에도 표기으로써 ‘ㅅ’과 ‘ㄷ’이 혼기되고 있다.

꽃_미퇴셔=花底(두초6:15) : 꼰_미퇴셔(두중6:15)
 놀라오미_곶겨놀(두중2:66): 띄_곶겨놀(두중2:34)

즉 형태음운으로 //ㅈ//과 //ㅊ//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나타나는 ‘ㅅ’과 ‘ㄷ’의 표기는 음운론적으로는 분명 등가의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형태음운 //ㅈ//, //ㅊ//에 사용하였던 ‘ㄷ’표기는 화자와 청자가 17세기 이후에 표기되는 종성 ‘ㅅ’의 형태음운표시에 대한 인식을 오도하는 기능을 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즉 용언어간과는 달리 그 자립성이 보장되는 체언의 경우에는 ‘ㅅ~ㄷ’의 교체에만 착안하여 형태음운표시를 아예 //ㅅ//으로 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다. 이러한 분석 태도는 종성표기 ‘ㅅ’이 음운/ㄷ/과 /ㅅ/을 모두 나타내는 이중적 부담을 갖게 되는 문제를 만들어 문자로서의 ‘ㅅ’이 ‘一文字對一音素’의 원리를 위배하게끔 만들고 있는 것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미파폐쇄음 [t̚]를 ‘ㅅ’으로 표기하게 된 것이 八終聲法 시기에 이미 //ㅈ//과 //ㅊ//이 ‘ㅅ’으로 표기되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광충구(1984:10)에서 'ㄷ>ㅅ'의 변화에 앞서 'ㅈ>ㅅ'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본 견해는 자음체계와 관련하여서가 아니라 이상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오히려 표기법의 전통과 관련하여 보았을 때 그 타당성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근대국어 이후에 나타나는 중철표기와 분철표기의 원리도 부분적으로 체언어간말음의 변화에 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의 ③과 ④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특히 용언어간이나 체언어간의 형태음운표시의 말음이 //ㅈ//과 //ㅌ//인 경우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나 어미가 연결되면, 'ㅅ'은 어간말음을 표기하고 'ㅈ, ㅌ'은 연철되어 후행음절의 두음으로 표기되는 중철의 모양을 보이게 되었다.¹⁰⁾ 이러한 표기의 전통은 체언어간말음을 형태음운 //ㅅ//으로 분석하게 하는 부분적 동기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인다. 근대국어 시기에 나타난 중철과 분철의 표기법 원리는 극단적으로는 음운/ㄷ/으로 확실히 분석될 수 있는 경우까지 'ㅅ' 표기를 선택함으로써, 18세기경에 이르러 체언어간들이 'ㄷ, ㅈ>ㅅ'이라는 형태변화를 겪는데 일조를 한 것이다. '못이(가례1:16), 벗이(노걸상:1), 뜻이어니와(박통중:31)' 등과 같은 예들은 17세기의 자료이므로 아직 이들 어간의 말음이 //ㅅ//으로 재구조화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표기로써 'ㅅ'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김완진(1976:118)에서는 노걸대언해의 경우 음절말 위치에서 표기되고 있는 'ㅅ'은 현대국어와는 달리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 앞에서도 음운론적으로는 /ㄷ/으로 실현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것은 형태음운이 //ㅅ//인 경우는 '웃시'와 같이 표기하여 구별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ㅅ'을 중성의 표기로 사용하고자 하는 힘은 대단하여, 체언의 경우인 '못이, 벗이, 뜻이어니와' 등과 같은 예들 뿐 아니라 용언의 경우에까지 나타나 '밋밋죽하다, 엇어'와 같은 표기가 나타나기에 이른 것이다.¹¹⁾ 어쨌거나 체언어간말의 설단자음들이 //ㅅ//으로 형태음운표시에

10) 김주필(1990:456-65)에서는 이 'ㅅ'표기가 유기음의 폐쇄지속성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11) 김완진(1976:118)에서도 '어디로니~엇일화'의 경우 'ㅅ'이 '어덜-'이라는 용언어간말음의 표기임을 보여 주고 있다. 이익섭(1993:15)에 의하면 용언의 경우 음운론적으로 /ㄷ/말음이 분명한 데도 'ㅅ'표기를 해준 경우가 明義錄諺解(1777)에서부터 세력을 얻어 19세기말까지 쓰이고 있다고 한다.

서의 재구조화를 완성하는 데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15세기의 八終聲法 이래로의 표기 전통과 그에 뿌리를 둔 근대국어 시기의 중철과 분철 표기의 원리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2.5. 이상에서 살펴본 'ㄷ>ㅅ', 'ㅅ>ㅅ'의 논의에 근거한다면 'ㅅ>ㅅ', 'ㅌ>ㅅ'의 변화도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광충구(1984)에서는 19세기 중엽 이후에 이르러서야 'ㅅ>ㅅ, ㅌ>ㅅ'의 변화가 일어났다고 보고 특히 //ㅌ//을 가진 경우는 현대국어의 단계에서도 재구조화가 완성된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본고는 이상의 논의를 통하여 체언어간말음이 //ㅅ//으로 재구조화하는 데 있어서 구개음화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변화임을 확인하였다고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광충구(1984)나 최전승(1986)에서의 논의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ㅅ'이 먼저 마찰음화를 통해 'ㅅ'으로 재구조화된다고 보고 'ㅌ'에 대해서는 구개음화와 평준화의 적용을 받아 'ㅌ>ㅅ>ㅅ'의 변화를 입은 것이라고 기술하는 태도를 부정하는 것이다.

고광모(1989:18)에서는 'ㅅ, ㅅ, ㅌ'의 경우 모두 /ㄷ/으로의 재구조화를 겪은 다음 'ㅅ'음화를 겪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그의 논의는 구개음화를 통한 음운론적 해석을 지양한 점은 본고의 논의에서도 지지하는 바이나 무엇보다 재구조화의 개념을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ㄷ/으로의 실현은 어디까지나 미파화에 대한 음운분석의 결과일 뿐으로 진정한 의미의 재구조화는 형태음운표시에서의 변화인 //ㅅ//으로의 실현이기 때문이다.

결국 'ㅅ>ㅅ, ㅌ>ㅅ'의 변화도 지금까지 언급한 본고의 논의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형태음운//ㅅ//, //ㅌ//이 음절말 위치에서 미파음 [t]로 실현되지만 이 음성에 대한 형태음운론적 인식이 //ㅅ//이었다는 사실이 동기를 제공하고, 표기 전통의 영향등으로 인해 재구조화가 완성되었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¹²⁾

12) 외래어 표기에 나타나는 'out'에 대한 '아웃'으로의 표기도 언중의 이러한 형태음운론적인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III

3.1.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해 보면 체언어간말 설단자음들이 //s//으로 재구조화한 것은 자음체계의 변화나 구개음화의 영향과는 상관없는 형태변화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변화의 단초는 음절말 위치에서 형태음운//s//이 미파화하여 음운론적으로 /c/으로 합류한 음운변화에 있음은 분명하다. 이러한 음운변화는 중성표기의 원리에 혼란을 가져왔고 화자와 청자는 음성산출 과정과는 다른 형태음운론적인 분석을 하게 되어 그 산출과 분석의 불일치는 형태음운표시에서의 재구조화를 일으키게 된 것이다. 이 재구조화 과정은 체언어간말이라는 형태론적인 범주의 특성에 힘입어 용언어간의 경우와는 달리 유추적 평준화를 통해 확대되어 현대국어에 이르러서는 //t//말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구조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현대국어에서 우리는 체언어간말음의 형태음운표시에서 //c//을 가질 수 없다는 형태소구조제약을 갖게 된 것이다.

3.2. 우리는 체언어간말 설단자음의 변화를 통해 언어변화에 미치는 표기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표기는 분명 언어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어야만 하지만 그 보수적 속성에 의하여 언어 현실을 분명히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거꾸로 언어 변화에 능동적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가 공식적으로 형태음운표시¹³⁾를 분석해 낼 때 화자나 청자가 갖고 있는 표기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중요

13) 본고에서 상정하고 있는 형태음운표시의 개념은 기저형의 개념과는 명백히 다르다. '기저형'은 '기저에서 표면으로'라고 하는 일방향적인 도출과정을 상정하고 규칙순을 가정한 개념이지만 '형태음운표시'는 음성표시를 산출하는 과정과 반대 방향인 발화에 대한 인식과 분석의 과정을 통해 얻어지는 개념인 것이다. 따라서 형태음운표시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좀더 자세한 논의는 김경아(1996)를 참조.

- ① 형태음운표시는 분석에 근거한 규약론적인(conventional) 것이다.
- ② 형태음운표시는 음성표시(모든 변이형을 포함)에 적용된 모든 음운현상들을 형태론적인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 취소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다.
- ③ 형태음운표시는 형태통사적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
- ④ 형태음운표시는 발음가능 단위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제약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언어체계 내에서 ‘字素’가 갖는 기능과 역할에 대한 좀더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논의는 다른 지면을 통해 살펴보고 이를 기약하기로 한다.

참고 문헌

- 고광모(1989), “체언 끝의 변화 ㄷ>ㅅ에 대한 새로운 해석”, 언어학11.
- 郭忠求(1984), “體言語幹末 舌端子音의 摩擦音化에 對하여”, 국어국문학91.
- 權仁翰(1987), “音韻論的 機制的 心理的 實在性에 對한 研究”, 國語研究76.
- _____(1991), “類解類 譯學書의 音節末 ㅅ, ㄷ 表記法 一考察”, 金完鎭先生 回甲紀念論叢『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 김경아(1990), “활용에서의 기저형 설정과 음운현상”, 國語研究94.
- _____(1992), “中世國語 終聲表記 ‘ㅅ’에 대하여”, 冠嶽語文研究17.
- _____(1996), “국어의 음운표시와 음운과정”, 서울대박사학위논문.
- 金完鎭(1976), 老乞大의 諺解에 대한 比較研究, 韓國研究院.
- 金政佑(1994), “音韻現象과 非音韻論的 情報에 關한 研究”, 서울대박사학위 논문.
- 金周弼(1988), “中世國語 音節末 齒音의 音聲的 實現과 表記”, 國語學17.
- _____(1990), “國語 閉鎖音의 音聲的 特徵과 音韻現象”, 姜信抗教授回甲紀念『國語學論文集』, 太學社.
- 배주채(1989), “음절말자음과 어간말자음의 음운론”, 國語研究91.
- 白斗鉉(1992), 嶺南 文獻語의 音韻史 研究, 太學社.
- 宋喆儀(1991), “國語 音韻論에 있어서의 體言과 用言”, 金完鎭先生回甲紀念 論叢『國語學의 새로운 認識과 展開』, 民音社.
- 李翊燮(1993), “近代國語 表記法의 性格과 特徵”, 정신문화연구16-1(통권50호).
- 李周行(1993), “近代國語 表記法에 대한 形態論的 解釋”, 정신문화연구 16-1(통권50호).
- 이현규(1985), “국어 형태 변화에 대한 표기의 간섭”, 한글189.

- 崔明玉(1993), “語幹의 再構造化와 交替形의 單一化 方向”, 省谷論叢24.
- 崔銓承(1986), 19세기 후기 全羅方言의 음운현상과 그 역사성, 翰信文化社.
- _____ (1995), 한국어方言史연구, 태학사.
- 崔泰榮(1977), “國語의 摩擦音化考”, 李崇寧先生古稀紀念⁷國語國文學論叢, 塔出版社.
- 허 옹(1975/88), 우리 옛말본, 샘문화사.
- _____ (1985), 국어 음운학, 샘문화사.
- 洪允杓(1993), “近代國語 한글文獻의 重綴表記에 대하여”, 정신문화연구 16-1(통권50호).

- Anderson, S.R.(1974), *The Organization of Phonology*, Academic Press.
- Basbøll, H.(1988/89), “Phonological Theory”, *Linguistics: The Cambridge Survey I*, ed. by F.J.Newmeyer, Cambridge Univ. Press.
- Bruck, A., R.A.Fox, & M.W.LaGaly eds.(1974), *Papers from the Parasession on Natural Phonology*, Chicago: Chicago Linguistic Society.
- Bynon, T.(1977), *Historical Linguistics*, Cambridge Univ. Press.
- Carr, P.(1993), *Phonology*, MacMillan Press.
- Crowley, T.(1992),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Linguis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Donegan, P.(1993), “On the Phonetic Basis of Phonological Change”, *Historical Linguistics: Problems and Perspective*, ed. by C. Jones, Longman Publishing.
- Dressler, W.U.(1982), “A Semiotic Model of Diachronic Process Phonology”, *Perspectives on Historical Linguistics, Current Issues in Linguistic Theory* vol.24,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_____ (1985), *Morphonology: the dynamics of derivation*, Karoma Publishers Inc.

- Goldsmith, J. ed.(1993), *The Last Phonological Rule : Reflection on Constraints and Derivation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oldsmith, J.(1995), "Phonological Theory",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ed. by J.Goldsmith, Basil Blackwell Ltd.
- Jannedy, S., R.Poletto & T.L.Weldon eds(1994), *Language Files: Materials for an Introduction to Language & Linguistics*(6th), Ohio State Univ. Press.
- Jeffers, R.J. & I.Lehiste(1979), *Principles and Methods for Historical Linguistics*, The MIT Press.
- Jones, C. ed.(1993), *Historical Linguistics*, Longman Publishing.
- Katamba, F.(1989), *An Introduction to Phonology*, Longman Inc.
- Kenstowicz, M.(1994), *Phonology in Generative Grammar*, Blackwell Publishers.
- Kiparsky, P.(1988/89), "Phonological Change", *Linguistics : The Cambridge Survey I*, ed. by F.J.Newmeyer, Cambridge Univ. Press.
- _____ (1995), "The Phonological Basis of Sound Change", *The Handbook of Phonological Theory*, ed. by J.Goldsmith, Basil Blackwell Ltd.
- Lakoff, G.(1993), "Cognitive Phonology", *The Last Phonological Rule: Reflection on Constraints and Derivations*, ed. by J.Goldsmith,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ass, R.(1984), *Phonology*, Cambridge Univ. Press.
- McMahon, A.M.S.(1994), *Understanding Language Change*, Cambridge Univ. Press.
- Picard, M.(1994), *Principles and Methods in Historical Phonology: From Proto-Algonkian to Arapaho*, McGill-Queen's Univ. Press.
- Stampe, D.(1987), "On Phonological representations", *Phonologica 1984*, Cambridge Univ. Press.